

Art Asia Read More

Seoul's Art Magazine FEBRUARY 2026



9-773092-173006-01 WY2600
ISSN 3692-1332

유럽 민담에 나오는 성스러운 물의 정령 멜뤼진(Melusine)은 평소에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지만, 목욕할 때만 하반신이 물고기(혹은 뱀)로 변하는 저주를 받았다. 남편은 그녀의 목욕 장면을 절대 보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열쇠 구멍으로 그 비밀(괴물적 신체)을 훑쳐보았다. 멜뤼진의 본 모습이 ‘물’과 관련된 수생 생물이라는 점은 그녀의 존재 자체가 고정되지 않은 유동성(unda)과 연결됨을 의미한다. 특히 그녀가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목욕시키는 장면은 철저한 금기였지만 대부분 남편이 몰래 훑쳐봄으로써 깨진다.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에서 진행 중인 이은실의 개인전 《파고Surging Waves》(2025.12.17 ~ 2026.1.31)는 작가 개인의 출산 경험에서 출발한 작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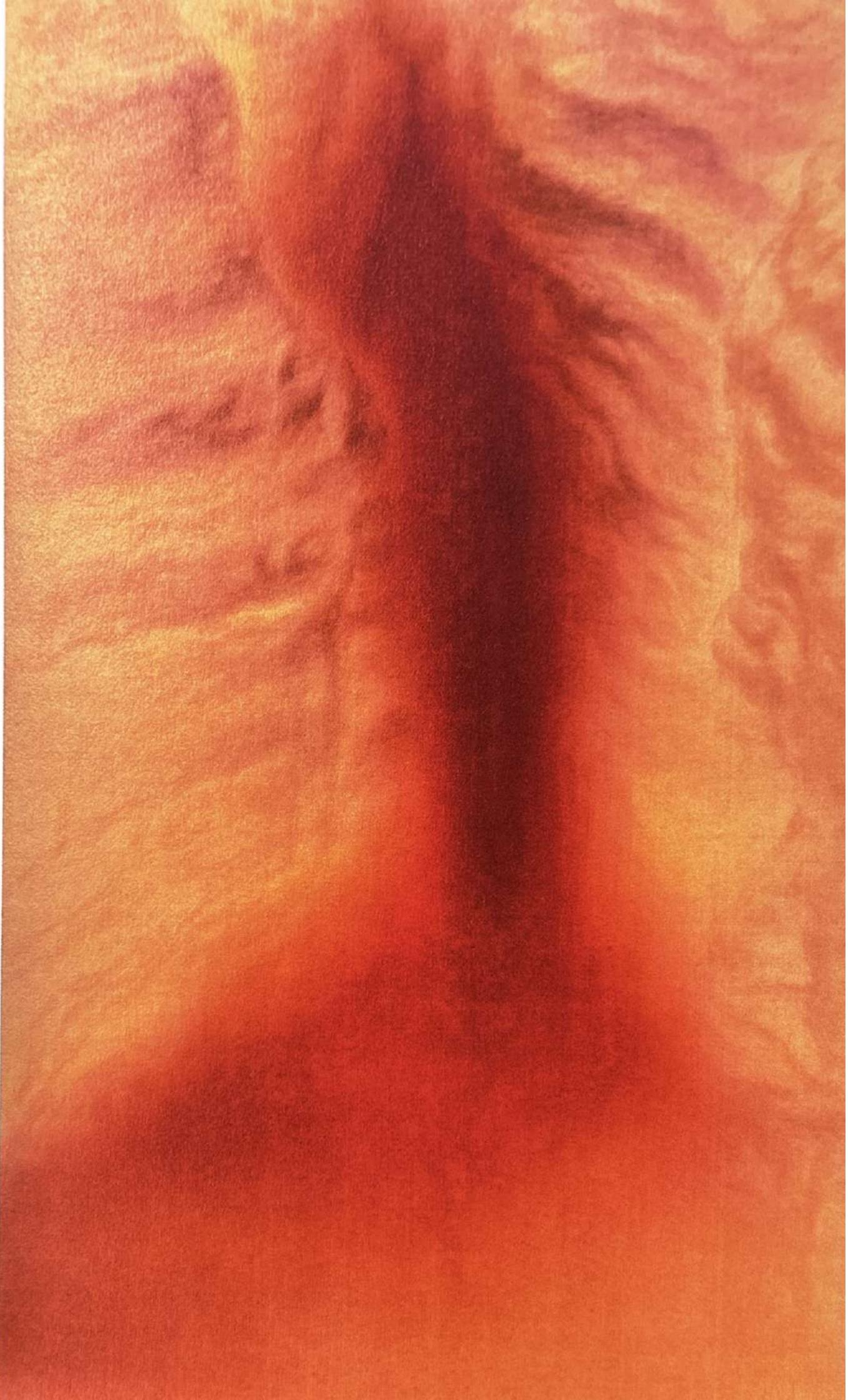
이은실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금기시되거나 은폐된 인간의 욕망을 수묵 채색으로 그려왔다. 《파고》는 그 대상을 ‘출산하는 여성의 신체’로 구체화시킨다. 작가는 서문에서 “출산은 생성과 파열, 주체의 해체와 존재의 확장을 양가적으로 의미하는 행위이다.”라고 밝혔다. 멜뤼진의 남편이 열쇠 구멍으로 본 것이 ‘괴물적 신체’였다면, 이은실은 출산 과정에서 겪는 신체의 파열, 장기의 밀려남, 피와 점액의 분출을 고요하면서도 처연하게 드러낸다.

작가는 출산 과정에서 맞은 에피듀럴(무통 주사)이 가져온 감각의 변화에 강렬한 영감을 받았다. 주사를 맞은 후 하반신의 감각이 사라지며 겪게 되는 몽롱한 환각 상태와, 생명을 밀어내야 하는 치열한 사투가 겹치는 지점은 고통과 환희가 공존하는 장소였다. 멜뤼진의 하반신이 뱀으로 변하듯이 출산 중인 여성의 신체는 용이거나 뱀, 폭발하는 화산, 요동치는 파도, 소용돌이치는 물결로 변주된다. 멜뤼진이 비밀을 들킨 후 비명을 지르며 용의 모습으로 날아갔을 때, 그녀가 남긴 것은 거대한 파동이었다. 이는 개인의 신체가 거대한 자연의 파동(unda)과 합일되는 순간을 의미한다. 이는 《파고》에서 묘사되는 생명 탄생의 거대한 흐름(unda)을 연상케하다. 작가는 출산의 고통을 ‘거대한 자연 풍경(monumental natural landscapes)’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여성의 신체가 가진 창조적이고 파괴적인 힘을 복원한다.

출산; 거대한 자연 풍경

이은실 LEE EUNSIL 《파고 Surging Waves》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이은실,
〈멈추지 않는 협곡〉
(2025)
종이에 채색,
207x120cm
©2025, LEE Eunsil,
Courtesy of the
Artist and
ARARIO GALLERY, /
[아라리오갤러리 제공]



이은실, <파고>아리리오갤러리 서울, 2025) 지하1층 전시전경. [아리리오갤러리 제공]

이번 전시는 '출산'이라는 주제를 최초로 전면에서 드러내는 자리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10여년 전 출산의 경험은 제 개인의 삶 속에서는 주요한 분기점을 마련하는 사건이었어요. 생의 변곡점이 된 거죠. 출산 직후에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감정적인 과잉상태였어요. 이제 10여년이 지나고 나니 이제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살펴보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할머니가 돼서 애기를 하면 너무 열어지고 희미해지니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시작은 10여년 전이지만 어느 정도 체화된 후에 나온 전시입니다.

파고라는 제목의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파고는 파도의 높낮이를 뜻하기도 하고, 어떤 긴장 상태를 말하기도 해요. 저는 인생의 수많은 크고 작은 것들을 상징할 수 있는 적합한 단어라고 생각했어요. 높고 낮은 파도는 개개인마다 다르기도 하고 겪어내는 일의 상황도 모두 다르잖아요. 파도가 치고 수많은 크고 작은 사건이 닥쳐오는 모습을 상징할 수 있는 단어예요. 출산 임신의 과정들이 한 개인에게는 파도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좀 높낮이가 있을 때 이 상징을 표현하기에 좋은 단어여서 선택했어요.

출산 후 개인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생기죠. 어떤 사람들은 산후우울증으로 고생도 하고요. 작가님의 개인적인 경험을 들려줄 수 있나요?

제 작품 중 하나인 <에피튜럴 모먼트>와도 연계되는 이야기인데요. 진통제가 들어갔을 때 머릿속은 아비규환 상태에 빠져요. 호르몬 작용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정상성을 벗어난 상태라고 보았어요. 생물학적으로 호르몬 조절도 잘 안될뿐 아니라 정신적인 상태도 통제가 안됩니다. 이전의 상태로 완벽하게 회귀하지 못할까봐 염려하기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뒤죽박죽 엉망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완벽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정상화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모두 멀쩡한 척하면서 살려고 할 수도 있고요. 모두 노력하면서 사는 거죠. 육아에 던져지는 상황이 되어버리는데 공동으로 육아를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엄마들은 이렇게 던져져 버리니까요. 예전에 여러 세대가 함께 육아하는 게 아닌 고립된 상태로 환경이 변화했죠.

<멈추지 않는 협곡>에서 출혈의 이미지는 전작 <해학자> 작품에서도 일부 등장해요. 무덤에서 출혈이 있다거나 <꼭 찬> 거꾸로 된 지붕에서 출혈이 일어나죠. 이미지의 연결성을 찾자면요. 전 작품에서 출혈에 대한 구상은 오래전부터 보였던 것 같아요. 전에 작업은 사회적인 상흔이라고 할 수 있고, 피의 형태들이 등장했다면 <멈추지 않는 협곡>은 단지

상처에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쏟아지죠. 인간이 겪는 한계치를 벗어날 정도의 진짜 출혈 상태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려고 했어요. 전 작업이 설화적이기도 한 형태였다면 협곡 작업은 산맥이 떠오르기도 해서 '몸을 장소'로 사용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육체가 풍경이자 장소가 되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아요. 몸이 장소라는 생각을 언제부터 한 건가요? 대자연의 풍경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느끼는 건 숭고미인데 협곡 작품에는 처연함이 느껴져요.

자연의 이미지로 은유한 점이 있지요. 협곡이라든가 물의 형태도 어떤 자연의 일부로 표현됩니다. 인간의 몸도 자연의 순환과정의 일부로 봤어요. 용암이 흘러내릴 때 장황한 풍경이 연출되듯이 출산의 과정도 이에 준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보니 이런 감정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인간이 스스로 파열하면서 파동을 일으키는 것, 받아들이고 해매는 것은 개인에게는 과도하게 느낄 고통의 정도를 협곡에 빚대어 봤습니다. 출산의 과정도 인간이 해낼 수 있는 대자연의

어떤 현상들 못지않게 경외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명의 탄생이라는 게 엄청나게 경이롭고 장엄한 일인 건 맞잖아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순환과정도 그렇고 인간이 아이를 낳는 것 자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들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작은 인간의 몸이 헤쳐나가면서 얼마나 부서지고 찢어지고 파열되고 고통스러움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출품작 중에 <에피듀럴 모먼트 Epidural Moment> (2025)는 여성의 출산 과정에서 겪는 극한의 고통과 그 너머의 감각을 시각화한 작품이에요. 이 작품에서 '용(Dragon)'이라는 클리셰가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순히 신화적인 장식을 넘어, 출산의 본질을 관통

하는 몇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태몽처럼 환상을 보는 상태에 놓여있는 것 같아요. 무통주사를 맞으면 고통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져요. 고통의 한계치를 넘어서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상 속에 놓이게 되는데요. 사회적으로 너는 용꿈을 꾸었으니까 훌륭한 아이가 될 것이라는 암묵적인 환영을 심어왔던 것 같아요. 용이나 뱀의 형상은 인간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환상과 환영

의 대상인 거죠. 이런 훌륭한 아이가 너에게 오고 있어. 너는 이제 행복해질 거야라는 거죠. 사회적인 장치의 일종이죠.

작가님의 작품에는 동물의 형상, 꼬리라든가, 털 등 일부가 등장하기도 하죠. 특별히 애착을 갖는 이유가 있나요? 특히 호랑이는 더 자주 등장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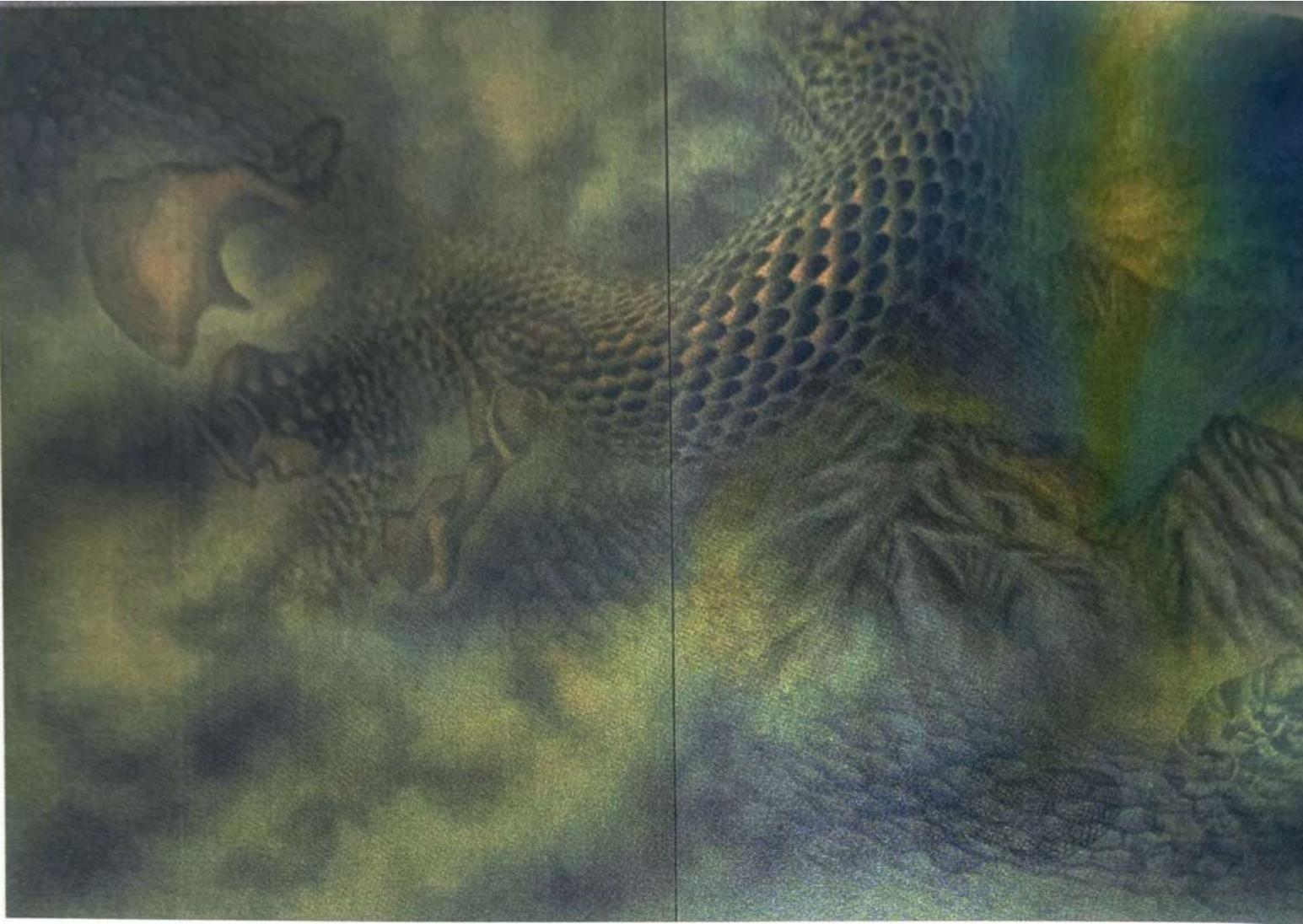
인간의 본성, 본능, 욕망에 대해 집중해요. 그러다 보니 동물 유형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통해 인간의 탐욕과 인간성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엄청난 권력을 향한 무차별적인 욕망이 영커 있는 모습들을 표현



이은실 작가 프로필 이미지, 아라리오갤러리 제공

할 때 호랑이가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사회적 힘을 향할 때 그런 동물들이 많이 나오죠. 최근에는 다층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지점을 표현할 때 흥미로워서 뱀이 등장해요. 이 뱀 자체가 종교적,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달라요. 어떤 문화권에서는 협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문화권에서는 새로운 생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투영되기도 해요. 동물의 꼬리야말로 '동물성'을 드러내는 부위잖아요. 인간은 퇴화했지만 원래는 갖고 있었다고 하고요. 꼬리는 관능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남근의 형상처럼 형상화되어 있기도 하고요. 꼬리만 영커 있는 작업은 욕망으로 뒤영커 있는 상황을 표현한 겁니다.

고통, 트라우마, 분노 등 복잡한 심리 상황에 대한 관심이 전작의 주제였죠. 이 주제에 특히 매료된 이



유가 있나요?(전작을 예로 들어도 좋아요). 이번 출산이라는 거대한 사건과 심리적인 면이 어떻게 연결되나요?

욕망 자체뿐만 아니라 욕망이 억압되다 발현됐을 때 나타난 구체적인 현상을 봅니다. 예를 들면, 정신 질환이나 분열된 심리 상태처럼요.

작가님이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작업의 소재이자 연구주제로 삼았던 이유가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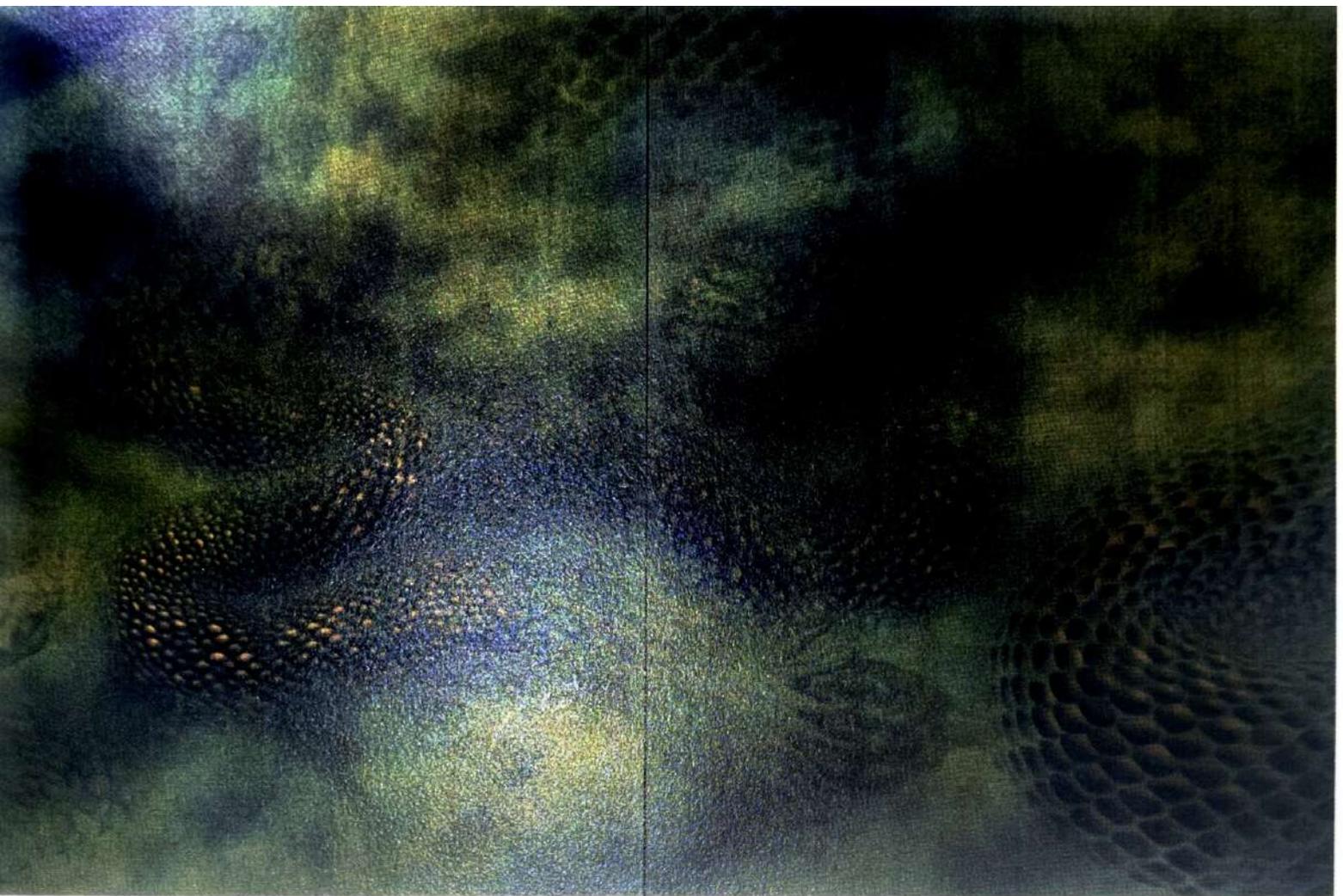
인간이 모여서 만든 사회는 정말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물론 저도 한 부분에 속해 있지만요. 그 근원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변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보니 각자 놓여 있는 심리 상태와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중고등학생 시절부터 예술가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웃음) 당시 종로에 있는 씨네큐브와 씨네코아에서 예술영화를 보는 걸 즐겼어요. 여중, 여고를 다니다가 대학에 진학해서 남자 중심인 사회에 놓였을 때, 붓물터지듯 이야기가 쏟아져 나온 것 같아요. 영국에 갔을 때 보았던 YBA 영국 작가 그룹의 태도와 거

침없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매료되었어요.

전작인 <태도>, <밤의 달>, <삶의 풍경> 작품을 보면 작가님은 욕망이나 사랑, 금기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해져요. 기예르모 델 토로 영화감독 <셰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 작품이 연상되기도 하고요. 작가님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내리고 싶은가요?

사랑은 변이되는 것이라고 봐요. 어디에 놓이느냐, 어떤 시점이나에 따라서요. 변형되고 변주되어 움직이는 것, 모양으로 빛을 수 있다면, 형식이 바뀔 수도 있고, 죽음으로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20년 전에는 사랑을 집착, 광기, 소유로 보지 않았을까요? 생명체처럼 변하는 것. 환상이 퇴색되기도 하고,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었을텐데..... 요즘은 사랑은 밥을 해주는 것, 쓰레기 버려주는 것이죠. 20대가 사랑의 신화를 불어넣는 시기에요. 사랑이 만 들어지는 감정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건지도 헷갈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계속 성찰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작업에서 사랑은 큰 위치를 차지하



고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하죠. 예술가로서의 운명, 본질은 무엇일까에 대한 탐구, 타고 남는 자아에 대해서도요. 이 대상이 도대체 사랑한다는게 소통했던 것인가. 나라는 존재에 대한 교감이었는지, 도파민이 일종의 스파크였던걸까. 소통을 통해서 진면목을 나누고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생각을 오랜 시간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본전시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동물만큼이나 '집' 도 자주 등장하는 소재예요. <중첩 상태 Superposition State>가 특히 그래요. 집도 끈두박질 치거나 문만 남아 있거나 하죠.

전통 가옥 구조는 보수적인 사회적 인 구조나 뿌리 깊은 관념들을 드러내요. 때로는 아름다움 그 자체로 봐주길 바래서 그린 것도 있고요. 그 외에는 시간적 변이랑 겹쳐지면서 다양한 구조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가정의 틀이나 인간의 유기적인 모습으로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실은 공간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서 미술서적보다는 건축서적을 더 많이 봤어요. 마치 영화를 보듯이 건축을 보는 거죠. 제가도 면을 정확히 그려서 건물을 짓는 직업이 아니니까 그림 안에서 집이 막 부서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구획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자유로움 때문에 즐거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사회의 틀이라는 게 멀쩡한 사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변이되고 변형되는 상황들이나 다양한 건축적 요소들이 제 작업에 나오는 것 같아요.

글 천수림 편집장, 이미지 제공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이은실 (b. 1983 출생)

2006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 졸업 후 2014년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서울, 한국, 2025), No.9 코크 스트리트(런던, 영국, 2024), P21(서울, 한국, 2021), 유아트스페이스(서울, 한국, 2019), 두산갤러리 뉴욕(뉴욕, 미국, 2016), 창강빌딩 1003호(서울, 한국, 2013),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서울, 한국, 2010), 대안공간 풀(서울, 한국, 2009)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2007년 <제29회 중앙미술대전>, 2008년 국립현대미술관의 <젊은 모색 2008>, 2014년 리움미술관의 <아트스펙트럼 2014> 등 주요 전시 참여작가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에는 제19회 송은미술대상 우수상을 수상하여 주목 받았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송은, 아라리오컬렉션 등이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